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합초등학교의 공간구성 및 폐교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ce Planning for Unified School and Appropriat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following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mall Schools in Rural Area

이 화 룡* 류 춘 근** 오 세 희*** 박 소 영****
Lee, Hwa-Ryong Rhew, Choon-Geun Oh, Se-Hee Park, So-Young

Abstract

According to the decrease in birth rate and reduction of population in rural area, primary schools have brought about many problems for decrease of number of student, and environment of education have became deteriorated. Accordingly, primary schools be required improvement, and it should be altered placement of schools because it change number of student, distance and time of attending school, and formation of school zone are changed by alternating of human and physical environment. Merger and abolition of primary school is inevitable for change of placement standard to primary school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environment of education in rural area.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ive space planning methods for unified school and appropriate utilization alternatives for closed school following after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mall rural schools. In doing so, it explores the present models of merger and abolition through analysis of all sort of actual condition and the possibilities for various utilizations of the abolished schools. It proposes a classroom-operation type fused the comprehensive class and departmental class system for merged primary schools in rural area. It also suggests the re-use methods of closed school facilities for studens and community.

Finally, it emphasizes that in order to success the policy of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mall schools, it be attributed to the social-cultural environment based on local residents and community and required provision of a variety of utilization plans reflecting local specifics and guarantee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election.

키워드 : 소규모학교 통폐합. 농산어촌 학교, 통합학교 공간구성, 폐교 활용, 지역주민 참여
Keywords : Merger and Abolition of Small Schools, Rural Schools, Space Planning for Unified School,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매년 취학하는 아동들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 아동의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 현상은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특히, 일부지역 소규모 학교들에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규모 학교들은 학생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과과정 운영이 어려우며 학생들의 교육여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학교의 폐교는 학생, 학부모, 지역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 학생 및 학부모는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며 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이어진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교의 통합을 통해 학생, 학부모,

* 정회원, 공주대 건축학부 교수, 건축학박사, 교신저자 (hlee@kongju.ac.kr)
** 정회원,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교육학박사
*** 정회원, 인제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 정회원, 대구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학박사

지역의 교육여건의 개선이 가능하며 통합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 학생 유치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여전히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역사회에 대한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교시설의 학생 및 지역주민 지원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과 통합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농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의해 폐교된 학교시설의 활용방안과 통합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각종 문헌을 통해 학교 통폐합의 의의, 필요성,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다음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통폐합한 충북보은의 속리산중학교의 시설 개선 사례를 조사한다. 현지답사를 통하여 통합의 과정, 폐교 시설의 활용 여부, 통합 후 성과, 시설 개선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학교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통합학교의 공간 계획과 지역주민과 학생이 공동 사용하는 폐교시설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농산어촌 지역으로 제한하며, 소규모학교 현황 조사와 분석은 전국 초·중등학교에 걸쳐 시행하고 통합학교 공간구성과 폐교 활용 방안은 초등학교에 국한하여 제안한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유형[1] 중 최근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소규모 학교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여 개교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다.

2. 소규모학교 정책

2.1 소규모학교 문제점과 통폐합의 요건

1) 소규모학교의 문제점

소규모 학교는 학급편제, 교직원 인사·배치, 업무분장 등 학교경영상 어려움이 많으며, 교원 업무부담 가중 등 교육여건 악화로 도·농간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혜영 외(2010)[2]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으로, 첫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 복식수업이 불가피하고 적정 규모의 또래 집단 부재로 학습동기가 저하되어 교수-학습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2007년 실시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결과 읽기 및 쓰기의 기초 미달 학생 비율은 읍면 지역이 중소도시의 2배로 나타났다. 둘째, 소규모 학교는 교육재정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인데, 소규모 학교의 1인당 교육비는 중규모, 혹은 대규모 학교의 2~3배에 달한다고 파악하였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급증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정일환 외(2010)[3]는 이에 덧붙여 학교규모가 적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공동체 생활의 문제로 학생들의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고, 학생들 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소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학생들 간에 경쟁의식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기본 요건

농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폐교되는 학교의 지역주민, 동문, 학부모의 반대 뿐 만아니라 교육학자들[4]에 의해서도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농촌 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학교는 학생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이다. 즉 학생들의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들의 학습권의 보장,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과소규모의 학교 통폐합의 유형은 ①학교급이 같은 경우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의 통폐합, ②학교급이 다른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초중통합,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고 통합,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합 형태인 초중고 통합, ③본교와 분교의 통폐합 및 본교의 분교장, ④병설 및 분교장 폐지 등으로 구분됨(최준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정책 분석. 지방교육경영 제13권 통합본. pp.44-65, 2008).

2) 이혜영,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0.

3) 정일환 외 6명,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10.

4) 최준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교육인적자원부, 2007, pp.82-84.

2.2 소규모학교 정책

1) 소규모학교 정책 추진 경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80년대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하여왔다. 그 추진 배경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제고라는 교육적 논리와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하는 경제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기조에 따라 4기로 구분이 된다. 각 기간별로 통폐합 기준은 변하여 왔으며 추진 주체 및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1982년부터 2010년까지 5,616개교가 통폐합 되었으며 통폐합기준은 1981년 180명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60명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1999년에 지원을 시작하여 2009년까지 본교 폐지·통합에 10억원, 분교장 폐지에 3억원, 분교장 개편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통폐합을 재추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인 제4기에 해당되며, 교과부 기준에 의한 일률적인 통폐합을 지양하고 도서 벽지 지역, 반대 심한 지역, 학생수 증가 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안교육, 작은 학교 육성. 특성화 학교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2011년 들어 교과부[5]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20% 내외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본 정책의 추진을 촉진시키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본교 폐지시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분교 폐지시는 3억원에서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통폐합 본교(초·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전원학교로 지원·육성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학교당 년 1.5억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2) 소규모학교 기준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으로 학생수 60명 이하를 권장하고 있으나 교육청별로 다양하게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표 1 참조>. 농어촌지역의 본교의 통폐합 기준은 시지역의 경우 60명이 많으며, 도지역의 경우 경기·전북·제주는 60명이나 충북·충남·경북은 50명, 강원은 15명으로 기준이 시지역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 분교장의 경우 대체로 20명 이하를 통폐합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강원은 5명으로 기준이 낮다. 도시지역은 인천·광주·경기는 200명, 부산은 600명 이하를 통폐합기준으로 삼고 있다.

표 1. 시도교육청별 통폐합 기준

구분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본교	분교	
시지역	부산·인천·대전·울산 60명 이하	인천 20명 이하	인천·광주 200명, 부산 600명 이하
도지역	경기·전북·제주 60명, 충북·충남·경북 50명, 강원 15명, 이하	충북·제주·경북 20명, 강원 5명 이하	경기 200명 이하

* 출처 : 2010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췌함(전남과 경북은 제외)

3) 통폐합 이후 학교·학생·지역에 대한 지원

소규모학교 통폐합시 지원책 뿐만 아니라 통합후 폐교학교와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즉 통합한 본교에 대하여서는 지역·학교단위 교원 선발권을 부여하거나 자율학교 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폐지된 학교 학생들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교육지원(예 : PC 구입비, 급식비, 교복, 교통비, 방과후 학교 수강권, 현장학습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통학버스 통합관리센터 설치 등 통학 편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폐교 시설을 지역주민들의 교육·복지·문화·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교직원 사택 현대화 등 교직원 복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3. 소규모학교 및 폐교활용 현황

3.1 소규모학교 현황과 통합 목표

1) 소규모학교 현황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이 시행된 1982년 이후 현재(2011. 3. 1. 기준) 폐지된 본교는 1,328개교, 분교장은 2,362개교, 분교장으로 개편된 학교는 1,819개교로 모두 5,509개교가 통폐합되었다.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1,597개교로 전체 학교의 13.9%, 분교장은 379교로 전체의 97.2%에 해당한다. 100명 이하의 학교는 2,414개교로 전체 학교의 21.5%, 분교장은 382교로 전체의 97.9%를 차지한다. 분교장의 학생수는 거의 대부분이 60명 이하임을 알 수 있다. 2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3,288개교로 전체의 29.3%, 분교장은 386교로 전체의 99.0%에 달하고 있다[6].

5) 교육과학기술부(2011).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6) 우명숙,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 한국교육시설학회 제18권 제5호, 2011.9월, p.16.

표 2. 소규모학교 현황

학생수 구분	본교				분교장			총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계	
60명이하	1,096	422	49	1,567	344	35	379	1,946
100명이하	1,675	624	115	2,414	347	35	382	2,796
200명이하	2,169	867	252	3,288	351	35	386	3,674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전국의 초중고학교는 11,237교이며 분교장은 390교임(2010. 4. 1. 기준)

2)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표와 같이 지역별로 구분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즉 농산어촌 통폐합 학교는 초등학교 260개교를 비롯하여 총 350개교를 계획하고 있다.

표 3. 지역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

구분		초	중	고	계
농산어촌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사업 포함)	260	80	10	350
도시	도시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40	6	4	50
	도시지역 학교 이전・재배치	20	15	15	50
공통	(초・중・고)통합운영학교 확대	50			50
계		332	144	24	500

* 출처 : 교육기술과학부 발표자료, 2009.

3)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복지 지원 사업

2009년부터 정부는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교육복지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사업으로 전원학교와 연중돌봄학교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들은 농산어촌 면지역 소재 학교의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복지 향상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기숙형 공립고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뿐만 아니라 교육 낙후 지역에 기숙형고교 150개교가 선정・지원되고 있다.

3.2 폐교 및 폐교활용 현황

1) 폐교현황

1982년이후 2010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370교의 폐교재산이 있으며, 이는 매각, 자체활용, 철거, 대부 등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다. 이 중 1,842개 폐교가 매각(54.7%) 처리되었으며 58개교가 반환되었고 205개교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해당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 폐교의 6.1%에 불과하여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재산활용이 요구된다.

표 4. 전국 폐교 및 처리된 폐교 현황(교과부 내부자료, 2010)

구분	폐지 학교수	처리종결			
		매각	반환	자체활용	소계
전국	3,370	1,842	58	205	2,105
비율(%)	100%	54.7%	1.7%	6.1%	62.5%
시지역	120	47	4	20	71
도지역	3,250	1,795	54	185	2,034

도별로 폐교가 많은 곳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순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은 매각을 통해,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은 임대하는 방식으로 폐교를 활용하고 있다.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로 180개교가 존재한다.

향후에도 폐교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감과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의 심화로 인해 농산어촌이 많은 전남, 전북, 경북 등 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 외곽의 개발로 인한 도시 확장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기존 학교의 폐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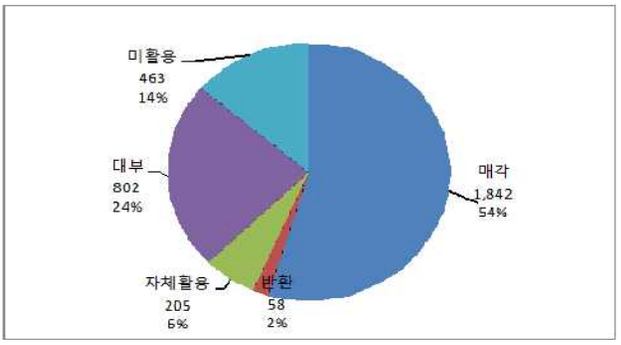

그림 1. 폐교 활용 현황(단위 : 학교수, %)

2) 폐교재산 임대 활용 현황

폐교는 매각, 대부, 자체 활용, 반환 또는 교환, 철거 또는 보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에서 관리의 용이성과 재정부담 등으로 인하여 폐교의 매각처리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매각 다음으로 대부가 가장 많으며, 대부에 의한 방법은 정부에서 선호하는 관리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폐교 중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468교(14%)에 달하고 수도권과 강원도 등 경제적 가치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매각 및 대부가 이루어지는 반면, 주변에 관광지원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남 등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교육청의 행・재정상

부담이 되고 있다.

폐교는 교육, 수련, 종교, 복지, 기업, 생산, 복리 시설 등으로 임대하여 활용되는데, 주로 많이 활용되는 사례는 교육시설, 생산시설, 복리시설, 복지시설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임대 폐교시설의 활용 현황(교과부 내부자료, 2010)

폐교 활용	대 부(임대)								
	교육 시설	수련 시설	종교 시설	복지 시설	기업 시설	생산 시설	복리 시설	기타	계
학교수	242	76	8	91	13	106	104	190	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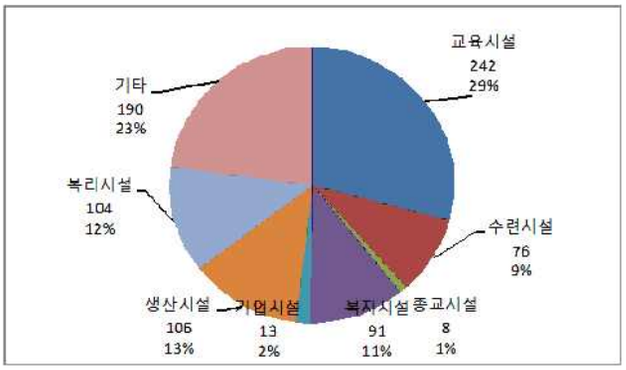

그림 2. 임대 폐교시설의 활용 현황(단위 : 학교수, %)

4. 소규모 학교 통합 사례 조사

4.1 소규모학교 통합 개요

1) 통폐합 개요

통합전의 총 학생수는 속리중학교 25명, 내북중학교 29명, 원남중학교 54명으로 시 지역의 한 학급의 수보다 적은 과소규모 중학교이었다. 그리고 학교시설도 내북중학교 1972년, 속리중학교 1973년, 원남중학교 1970년에 각각 준공되어 모든 학교시설이 개축대상 건물이었다.

충북 보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속리중학교, 내북중학교, 원남중학교를 폐교하고 원남중학교를 리모델링 및 개·증축을 통하여 속리산중학교로 통합 하였다. 통합학교는 4개학급 120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며,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로 건립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 통폐합 과정

세 학교의 통폐합에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차이, 지역 여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종 공청회, 의견수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등을 바탕으로 학교의 통합을 이루었다. 그리고 통학구역의 조정, 학구조정, 건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통합 학교간 공동 체험활동등을 실시하여 통합 이후 학생의 적응을 위해 조치를 취하였다.

4.2 교육환경 개선 및 교과지도의 변화

1) 시설 개선 및 신축

원남중학교, 내북중학교, 속리중학교의 세 학교가 통합된 속리산 중학교는 기존 원남중학교의 건물을 리모델링 및 개·증축하여 학교시설을 확보하였다. 즉 27,180㎡의 대지면적에 125여원을 투입하여 교사동, 식당 및 다목적실, 체육관, 기숙사 동을 리모델링 혹은 신축하고,, 기존의 열악한 시설이었던 운동장 및 농구장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수업환경의 개선을 가져왔다.

교사 및 운동장의 환경 개선 신축된 체육관과 기숙사

그림 3. 속리산중학교의 신축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사진

2)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통합 속리산중학교의 특색교육으로는 월1회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한마당가족회의,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1인1테마 book 제작, 1인 1국화 가꾸기, 1인 1악기 연주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인성함양을 위하여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과교실제 운영, 수준별 수업, 주간 방과후 교과학습, 야간 방과후 특기·적성, 개별 학력 관리 프로그램, 정독실 자율학습이 운영된다. 그리고 체력증진을 위한 1인 1검도 운동과 농구, 탁구, 헬스, 배드민턴 등의 여가운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3) 교육활동 및 교과지도 변화

속리산중학교는 기숙형 학교이므로 정규 수업 이후 방과후 교육활동과 동아리 활동 및 체력단련이 매일 이루어지고, 저녁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에 이어 야간 방과후 교육활동, 자기주도적 자율학습 및 취미활동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편성되었다. 기숙사 운영으로 인해 등교, 귀가 일에는 학생을 이동하는 버스 2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지도면에서 순회교사가 담당하는 교과 시수

가 통합 후에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통합 전 원남중학교의 경우 순회를 가거나 순회를 오는 교과가 6개 교과였으나, 통합 후 순회를 가는 교사만 4개 교과이며, 순회를 오는 교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교과 지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5. 통합학교 시설 및 공간계획

본장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지침을 기반으로 통합학교의 교육학습영역의 공간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4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통합학교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 학습과 특상화 프로그램을 적용한 공간계획을 제안한다.

5.1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통폐합 초등학교 시설계획

1) 소규모 통합학교 시설 기본 방향

농산어촌의 많은 학생들이 도시지역의 학교로 진학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도시지역의 학교들이 더 좋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소규모학교들을 통합한 학교의 경우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대폭적인 행·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공간의 규모와 구성역시 학교교육계획서에 제시된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방과후 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활동 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개정교육과정 검토

통합 초등학교의 공간구성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과 학교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된다.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하며,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특히「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교과군, 학년군제가 도입되었다. 교과군이란 기존의 교과들을 교육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군 개념으로 유목화하는 개념이다. 학년군은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3개 학년군으로, 중학교와 고교는 3개 학년을 각각 1개 학년군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과군과 학년군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여주는 효과[7]가 있으며 수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토론, 실험 중심으로 수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표 6. 학교급별 학년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7~9학년	10~12학년

3) 통합초등학교 공간구성 체계

농촌지역의 통합 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학년별 학생수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년군과 교과군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설 활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통합초등학교의 공간 구성은 학년군별 홈룸(거점교실, home-room[8]), 교과군별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체제를 제안한다. 이와 함께 창의적 재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활동지원시설과 옥외 체험활동시설을 제안한다. 즉 통합초등학교의 공간구성은 ① 학년군별 홈룸, ② 교과군별 교과교실, ③ 특별교실, ④ 학생활동지원시설, ⑤ 옥외체험시설, ⑥ 교사지원시설, ⑦ 행정관리시설로 분류하여 체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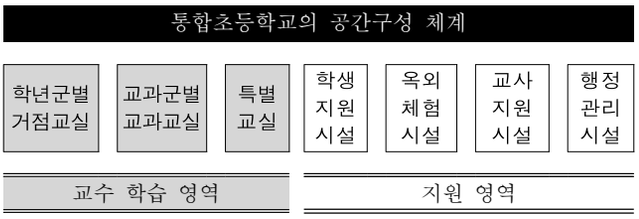

그림 4. 통합초등학교의 공간 구성 체계

5.2 통합 초등학교 교수학습영역 공간계획

1) 통합 초등학교 공간 구성

통합초등학교의 공간은 <그림 4>와 같이 교수학습영역과 지원영역으n 로 나눌 수 있으며, 지원영역은 학생지원공간, 교원지원공간, 행정관리공간, 옥외활동 체험공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수학습영역은 홈룸교실, 특별교실,

7) 2011년이후에는 초등학교 3-6학년의 경우 도덕/사회, 과학/실과, 음악/미술로 현재 10개과목에서 7개교과군으로 축소됨

8) 홈룸(homeroom)은 거점교실(home-classroom)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교과교실형 학교시설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잦은 이동에 따른 정서적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과전용교실 외에 별도의 교실을 두어 학생들이 학급활동, 공강 시간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 전통적인 행정적 반 편성 운영의 장점을 접목시킴으로서 교과교실형 운영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설 일체를 의미함

교과교실로 구성되며, 홈룸교실은 학생수 및 학년군 등을 고려하여 3개, 즉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군으로 나눈다. 교과교실은 영어교과교실(english zone), 국어교과교실, 수학교과교실, 예술교과교실, 과학/실과교과교실, 사회/도덕교과교실 등 6개교과군교실로 구성한다. 특별교실은 멀티미디어실(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험실습실, 실과실습실로 구성한다.

2) 통합초등학교 교실 운영 방법: 종합교실과 홈룸교실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의하면, 학급 단위의 보통교실에서 활동 중심의 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집단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학습 코너를 구성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교실은 학급 단위를 기준으로 학급이 전용하는 학급 교실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학급 인원을 수용하는 기본 교실이 필요하다.

통합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적어 학급당 학생수 역시 적은 특성이 있으며, 대체로 잉여교실과 여유교실은 많아 공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므로 1-2학년은 종합교실로 구성하고 3-6학년은 학년군별로 거점교실을 두어 교과교실과 특별교실을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초등학교의 교실면적은 학급당 학생 수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 방식을 반영하여 계획해야 한다. 면적은 교수 학습 활동 방식 상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통교실의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는 우선 보통교실 면적 내 다목적 공간을 구성하여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과 통합학교의 학급당 적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교실 면적은 그대로 두고 복도 등의 교실 부근에 다목적 공간을 구성하여 활동 중심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접근 가능하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의 보통교실은 종합교실 형태로 계획할 다양한 소집단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교실 면적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

통합 초등 학교 교실 운영 방법	① 종합교실 + 특별교실	통합교과로 전담지도를 받는 1~2학년에게 적합한 종합교실형으로 이 경우 종합교실은 기존 일반교실의 활용이 가능하나, 다소 큰 규모의 학년 전용 교실을 확보하여 학급 내 다양한 소집단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② 거점교실 + 교과교실 + 특별교실	통합초등학교 3~6학년에 적합한 거점교실, 교과교실과 특별교실형은 교과교실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서 교과군별 전용교실과 과학, 영어, 음악, 미술, 실과 등 특별교실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그림 5. 통합초등학교 교실 운영 방법

3) 특별교실의 공간구성 방법

통합 초등학교의 특별교실은 멀티미디어실(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험실습실, 실과실습실, 실내체육관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특별교실은 교과 활동에 필요한 교구를 수납·보관하는 공간과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 이전에 준비하는 준비 및 협의 공간을 마련하고 부근에 컴퓨터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소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교과교실의 공간구성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합초등학교의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공간을 활용한 교과교실을 제안한다. 교과교실은 영어교과교실(english zone), 국어교과교실, 수학교과교실, 예술교과교실, 과학/실과교과교실, 사회/도덕교과교실 등 6개교과군교실로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물론 이는 교실의 여유가 있을 것을 가정한 경우이며 부족할 경우 국어교과교실은 도서실과 겸용할 수 있으며, 예술교과교실은 미술실 혹은 음악실을, 과학/실과교과교실은 과학실험실과 실과실습실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국민공통기본 교과로 설정된 이들 교과는 중학교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내용으로 편성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교수·학습 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별로 필요로 하는 학습 자료를 하나의 공간으로 모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전용 교과 교실을 두고 다소 넓은 공간으로 마련하여 코너에 학습 자료를 설비하고, 인근에 간단한 활동 학습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단위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서는 도덕/사회교과의 경우 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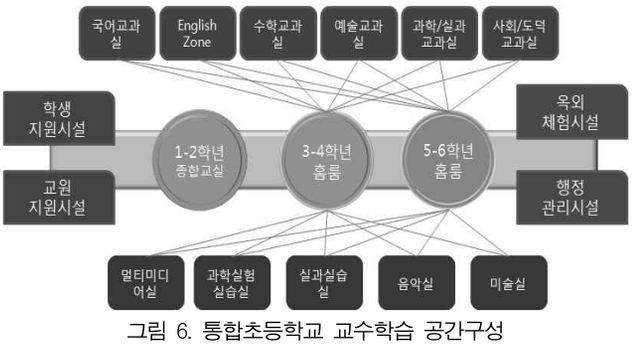

그림 6. 통합초등학교 교수학습 공간구성

실습을 위한 공간 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 영어과에서의 다양한 어학 습득학습이 이루어지는 영어교과실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과의 경우도 사회과 자료실 혹은 향토실 등의 명칭으로 통합초등학교에 설치하여 통폐합전의 학교들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한다.

5) 옥외 학습 및 체험 활동 공간(outdoor classroom)

최근의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의 학습 활동 장소를 교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학교 운동장 더 나아가 지역사회로 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존의 교실 중심 학습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전체를 학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체육장을 여러 가지 학습·휴게·놀이공간으로 조성하여 옥외학습공간을 확충하고,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 환경 교육장, 정서 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학교 부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교실외로 학습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산어촌의 통합초등학교의 경우 대체로 학교 부지가 여유가 있으므로 자연생태체험, 농사체험, 예술문화체험, 야영체험, 진로체험, 아토피 치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옥외공간을 창의적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5.3 방과후학교 및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적 대응

제4장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통합학교의 성공여부는 학교마다의 지역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과 독창성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절에서는 농산어촌의 소규모 통합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여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이에 적합한 시설적 대응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농산어촌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으로 정의되며, 학교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자율 참여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9] 또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반영하여 학교교육의 일환임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방과후학교 운영의 근거[10]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은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 규모가 강화되어야 한다.

2) 통합초등학교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사례와 공간 소요

울산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두동통합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시안[11]을 살펴보면, 환경성질환예방전원학교, 토요휴업프로그램(창의체험학습), 토요스포츠클럽, 토요음악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1인1예능프로그램, 학부모 및 주민 평생교육(도예, 풍물 등)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교과교실과 특별교실 등이 필요하다.

즉 영어교과교실(english zone), 국어교과교실, 수학교과교실, 예술교과교실, 과학/실과교과교실, 사회/도덕교과교실 등의 교과교실과 멀티미디어실(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험실습실, 실과실습실의 특별교실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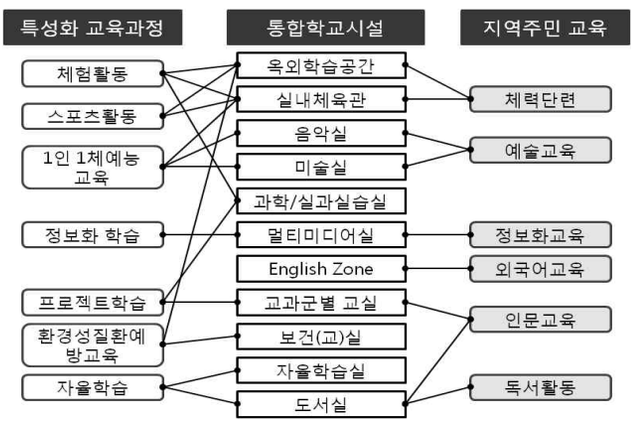

그림 7. 특성화교육과정과 지역주민시설에 대응하는 교실 구성

3) 통합초등학교 특성화 교과프로그램과 시설계획

통합초등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영어활용능력 신장(영어인증제 운영), 책을 즐겨읽는 교육(독서인증 프로그램 운영), 한자교육: 한자 인증제, 토론과 체험교육,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 등이 제안된다.

9)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2011.7.29

10) 초중등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11) 봉월초&두동초 통합합의에 따른 학교통합 추진 계획(안), 2011.12, 울산교육청 행정과 내부자료 참조

표 7. 통합초등학교 특성화 교과프로그램과 시설계획

구분	프로그램명		시설 계획
교과교육	영어활용 능력 신장(영어 인증제 운영)	⟹	English Zone
	책을 즐겨읽는 교육(독서 인증 프로그램 운영)	⟹	도서정보실 (국어교과교실)
	한자교육: 한자 인증제	⟹	국어교과교실
	토론과 체험 교육	⟹	교과교실, 특별교실, 세미나실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	⟹	교과교실, 시청각(다목적)실, 자율학습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방과후 공부방	⟹	자율학습실
	특기 적성교육	⟹	교과교실, 특별교실
	1인 1예체능 특기교육	⟹	미술실, 음악실, 체육관
창의적 체험활동	다모임 체험	⟹	세미나실, 온돌식 명상방, 다목적실
	정보화 동아리	⟹	멀티미디어실
	자연생태체험	⟹	텃밭, 생태공원
체력단련	건강토탈케어	⟹	아토피 숙소, 숲길, 수련/체험실
	체력단련	⟹	운동장,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지역주민 평생학습	인문·예술 교육	⟹	어학실,
	정보화교육	⟹	멀티미디어실
	도서관	⟹	황토방 한옥도서실
	역사 교육	⟹	학교역사관

이를 위한 시설로는 English Zone, 도서정보실, 각 교과별 교과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다목적실), 자율학습실 등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 운영 프로그램은 방과후 공부방, 특기 적성교육과 1인 1예체능 특기교육 등이 제시된다. 이에 대응하는 시설로는 자율학습실, 교과교실, 특별교실(미술실, 음악실), 실내체육관 등이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다모임 체험, 정보화 동아리, 자연생태체험 등이 제안되며, 세미나실, 온돌식 명상방, 다목적실, 멀티미디어실, 텃밭, 생태공원 등이 소요된다. 그 밖에 지역주민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인문·예술 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계획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황토방 한옥도서실, 학교역사관 등이 필요하다.

4) 통합초등학교 공간 구성(종합)

교수학습영역이외에도 교사지원시설, 학생활동 지원시설 등이 필요하다. 도서실은 교직원에게나 학생에게 교육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교육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여야 하고, 시청각실은 전 학생이 모여 학생회 발표회를 겸용하는 소규모 강당으로 구

표 8. 통합초등학교 공간구성 종합(제안)

공 간 구 성			내 용	비고
교수학습공간	홈룸 교실	1-2, 3-4, 5-6 학년별 홈룸	· 학년군별 홈룸 · 1-2학년 홈룸은 종합교실형	
	교과 교실	영어교과교실	· English zone · 외국어 회화실습 등	
		국어교과실	· 도서실과 겸용 가능	(권장)
		수학교과실		
		예술교과실	· 음악/미술/체육	(권장)
		과학/실과 교과실	· 과학/실과 실습실과 겸용 가능	(권장)
		사회/도덕 교과실		(권장)
	특별 교실	멀티미디어실	· 컴퓨터/정보과학	컴퓨터실
		과학실험실습실	· 가능하면 습식/건식 별도의 실습실	
		음악실	· 개인연습실 포함	1인1예체능 교육
		미술실	· 디자인실 포함	
		실과실습실		
학생지원공간	도서실(정보자료실)		· 인터넷 등 컴퓨터 인프라 구축 · 멀티미디어 교재 제작	
	자율학습실		· 주제중심의 프로젝트실 겸용	방과후 학교
	동아리실		· 학생자치활동 지원 · 동아리활동 지원(음악, 체육, 봉사 등)	
	시청각실/다목적실		· 미디어 센터와 연계 · 창작 발표회 등	전교생 수용
	상담실		· 개인 상담실과 집단 상담실	
	방송실/studio		· 교무실과 연계 · studio	
	휴게/탈의/샤워실		· 적정 면적 확보	
교원지원공간	교무센터		· 교감실 · 교사회의 스페이스	
	교사연구실		· 거점교실 혹은 교과교실 활용	1교사 1실
	교과협의실/ 강사대기실		· 교사연구실과 연계	
	교사휴게실/샤워실		· 교사연구실과 연계	
옥외체험지원시설	생태공원, 옥외 학습공간, 창의적 체험활동운영시설		· 학교여건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설 마련	
관리공간	교장실, 행정실, 회의실, 숙직실, 인쇄실, 서고, 창고, 보건(교)실, 학부모 운영회실		· 효율적 운영 방안	
공용공간	복도, 계단, 승강기, 현관, 테라스, 라운지, 오픈스페이스, 기계전기실		· 공동 공간을 휴게 공간과 연계	
기타시설	식당/주방			
	다목적 강당		· 체육활동 겸용	

성하도록 한다. 학습 자료실은 교과별로 분산 배치할 것인지, 종합 배치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단위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통합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이 충분하므로 1교사 1교실 원칙으로 각 거점교실 혹은 교과교실에 교사연구실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교원 연구실이외에 학년간 연계수업과 통합교과 운영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교사회의실, 협의회실 등을 마련하여 교사들간의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순회교사를 위한 강사 대기실을 확보한다. 통합초등학교의 공간구성 방안을 종합하면 <표 8>과 같이 정리된다.

6. 폐교의 학생/지역주민 공동 활용 계획

6.1 폐교시설 활용 접근방법과 모형

1) 폐교시설 활용 접근방법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폐교학교시설 활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폐교시설의 리모델링, 개·증축 등을 통한 교육복지적 재활용으로 통합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활용을 제안한다.

2) 폐교시설 활용 모형

폐교 시설의 활용에 있어서 아래 <그림 8>과 같이 지역사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각각의 이해, 요구, 필요 등이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 이들 주체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폐교시설의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즉 폐교 지역주민의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를 위해 지역 주민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시설의 활용을 도모한다면 주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통폐합에 대한 저항을 반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폐교시설의 방치는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폐교시설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이 폐교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폐교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원활하게 정착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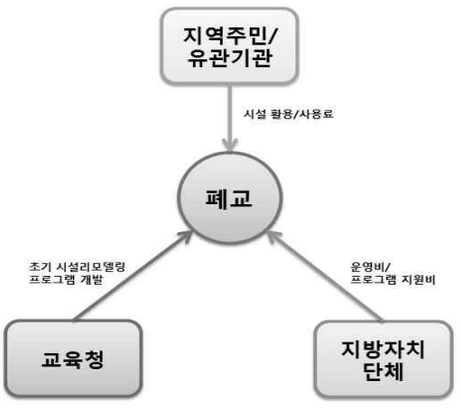

그림 8. 폐교시설 활용 모형

6.2 폐교시설 활용 시설 검토

1) 폐교재산의 활용 가능한 법적 시설

폐교재산이라 함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기타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하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가 정하는 시설은 다음 <그림 9>와 같이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림 9. 폐교 활용 가능시설

2) 폐교를 활용한 학생/지역주민 공동 활용시설

농촌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12]의 설문조사 결과, 농산어촌 주민들은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재활용되기를 원하며, 시설운영 주체도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운영하길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 활용사례 중 울산시의 통합초등학교의 경우[13], 폐교학교인 봉월초는 지역주민 문화·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즉 폐교시설을 학교역사관, 인터넷 학습장(카페), 컴퓨터교실, 황토방 한옥 도서관, 찜질방

12) 마상진, 농촌의 폐교활용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134, 2010.09

13) 전게서, 울산교육청 내부자료.

및 샤워실, 어학실 등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역주민 복지 및 문화시설은 해당 지역의 학교통합추진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봉월초 운동장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과 체험학습, 텃밭가꾸기 등 학생들의 전원생활 체험을 위한 노작교육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의해 발생하는 폐교시설을 매각이나 임대보다는 해당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교육/문화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폐교시설 활용 프로그램과 운영 시설을 결정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서 지역학교 폐교에 대한 박탈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결론

본 연구는 농산어촌의 주변 여러 소규모학교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여 개교하는 방식의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교된 학교시설의 활용방안과 통합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통합학교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의 좋은 학교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학교의 운영형태는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운영의 다양성이 도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공간 역시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하며 과목별 수준별 수업, 교과교실제, 방과후 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주민 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통합 초등학교의 공간구성은 1-2학년의 경우 종합교실로 구성하며, 3-6학년은 학년군별로 홈룸교실을 두고 교과별 교과교실(필수 및 권장교실)과 특별교실을 활용하도록 제안한다.

둘째, 옥외학습(outdoor class) 및 체험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도록 제안하였으며, 교사연구실은 1교사 1교실제를 활용하여 전 교사가 전용교실을 확보하고 순회교사를 위한 별도의 대기 및 연구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농촌지역 통합학교의 방과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주민 체력단련, 지역주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에 대응하는 공간과 시설계획(안)을 각각 제시한다.

넷째,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의해 발생하는 폐교시설을 매각이나 임대보다는 해당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재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섯째, 폐교시설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 프로그램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요구되며, 폐교 일정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의 요구시설로 전환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여섯째,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할 경우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뿐 만아니라 문화, 복지 측면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교육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학생들의 학습권의 보장,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주민 삶의 질의 향상, 정주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등이 함께 노력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최준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정책 분석. 지방교육경영 제13권 통합본, 2008.
2. 이혜영,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0.
3. 정일환 외 6명,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10.
4. 최준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교육인적자원부, 2007.
5. 교육과학기술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신설 수요 관리, 2011.
6. 우명숙,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 한국교육시설학회 제18권 제5호, 2011.9.
7.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2011.7.29
8. 봉월초&두동초 통합합의에 따른 학교통합 추진 계획(안), 2011.12, 울산교육청 내부자료.
9. 마상진, 농촌의 폐교활용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2010.

접수 2012. 2. 27
1차 심사완료 2012. 4. 12
2차 심사완료 2012. 4. 18
게재확정 2012. 5. 25